

“아이들과 부대끼며 아빠로서 ‘나’ 찾았다”

육아휴직 아빠들의 토크 들어보니

광주시·산하기관 남성휴직 14명 “소중했던 1년” “사회적 인식 변화 위해 재택근무 제도 도입됐으면”

“아빠로서 나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워킹패밀리’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육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 특히 ‘워킹대디’는 사회와 직장에서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섣뜻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힘들다.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진희)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일

하는 아빠들의 육아토크’ 행사가 열렸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주제강연과 육아휴직 중인 5·18기념재단 고재대(37)씨와 KT전남본부 서정훈(36) 과장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서 과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 아빠는 없기에 육아와 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워킹대디들의 육아휴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재택근무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국제교류센터 회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외국인들과 함께 광주·전남 곳곳을 둘러보고, 아들(7)과는 보름간 미국 횡단에 나서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일도 매일 반복했다.
서 과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 아빠는 없기에 육아와 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워킹대디들의 육아휴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재택근무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11개월 차인 고씨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육아에 들어갔다. 5·18재단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과 자신의 일을 대신 하게 될 직장 동료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다. 처음에는 운동 등 계획도 많이 세웠지만 육아와 가정일을 전담하다 보니 컷바퀴 돌듯 돌아가는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항상 가족에게 미안했는데 아이들이 아빠와 친숙해진 것 같아 보람”이라며 “육아는 여성이나 육아휴직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로버트 오그번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공사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효율을 따질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남비’해서라도 함께할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워킹패밀리가 자녀와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산하기관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13명(남 4명)에서 지난 9월 말 현재 48명(남 14명)으로 늘었다. 반면 여성·문화네트워크의 ‘2015 워킹대디 육아휴직 실태조사(전국 육아휴직 대상 남성 1000명)’에 따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8.8%에 그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충장축제 D-2 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 화단에 설치된 충장축제 마스코트가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추억&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2회 충장축제는 7일부터 11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충장로 일대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순천 방송통신중 내년 3월 개교

전남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하게 돼 학업을 중단했던 성인들이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중앙여중과 순천연향중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 내년 3월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중은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3년제 교육과정으로, 4월 기준 광주 북성중을 비롯 전국 8개 시·군에 12개 학교(학생수 2074명)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 전남에 2개 등 8개 방송중이 추가로 신설되면 전국에 모두 20개교가 운영될 전망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돌고래호’ 15번째 시신 수습...실종 3명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가거도 동쪽 43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9.77t)의 실종자 인 공모(43·충북 진천)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난달 5일 돌고래호가 전복된 추라도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65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공씨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까지 수습 인원 21명 중 15명은 수습됐고 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3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0 해질 18:12
달출 13:33 달몰 13:33

맑은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6	보성	맑음	12/25
목포	맑음	15/23	순천	맑음	15/26
여수	맑음	17/23	영광	맑음	11/25
나주	맑음	12/26	진도	맑음	13/25
완도	맑음	15/24	전주	맑음	11/25
구례	맑음	12/26	군산	맑음	11/24
강진	맑음	13/25	남원	맑음	10/25
해남	맑음	13/25	홍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10/25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남부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남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부	남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50
-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14	00:12	20:08	12:21
여수	01:47	08:04	15:03	21:43

◇주간 날씨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4/27	13/25	13/24	13/22	12/21	12/22	12/22

진도 ‘세월호 기억의 숲’ 내달 완공

세월호 참사 발생 1주년인 지난 4월 첫 삽을 뜬 ‘세월호 기억의 숲’이 늦어도 다음달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4일 사회적기업 ‘트리플레닛’에 따르면 진도군 팽목항 인근 백동 무궁화동산 부지에 조성중인 세월호 기억의 숲이 현재 진행중인 276그루의 은행나무를 심는 것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다음달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총 306그루의 은행나무를 심기로 한 트리플레닛은 이미 30그루의 나무를 심은 상태다. 이에 앞서 트리플레닛은 최근 세월호 기억의 숲 내부에 설치할 조형물 ‘기억의 방’ 실물 모형을 완성하고 안전성 테스트도 마쳤다.

‘기억의 방’ 실제 조형물 설치는 276그루 은행나무 심기와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기억의 방은 높이 5m 규모로 내부에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편지, 오드리 햅번의 아들 셉 헨번이 사회적기업 트리플레닛에 제안한 기부 명단 등이 새겨진다.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프로젝트는 아동 인권과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여배우 오드리 햅번의 아들 셉 헨번이 사회적기업 트리플레닛에 제안해 이뤄졌다. 지난 4월 9일부터 모금을 벌여, 모금 시작 36일 만에 목표액의 200%(2억568만원)을 달성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리산 노고단 정상 탐방 예약제 시행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노고단 정상 탐방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남부사무소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23일간 매일 14차례(오전 9시~오후 4시, 30분 단위)에 걸쳐 사전에 예약한 탐방객들에 한해 노고단 정상을 개방한다.
노고단 정상은 가을철이면 붉게 물든 단풍과 산오이풀, 개쑥부쟁이, 구절초,

물매화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탐방 문의는 지리산국립공원 누리집(http://jiri.knp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자들은 현장 방문 시 예약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화 문의는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061-780-7700), 지리산국립공원 화엄탐방안내소(061-783-9106),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대피소(061-783-1507)로 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성별	직업	연령
남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남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남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남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남	공무원(5급~9급)	27~42세
남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남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남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남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남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남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남	공무원(5급~9급)	27~42세
남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남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남	사업가, 자영업	29~39세
남	간호사, 은행원	26~47세
남	세무사, 연구원	29~48세
남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남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남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남	교사, 교수	28~49세
남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810동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펌프장, 배수장, 양만장, 배수갑문, 양수장, 저수지, 골프장, 상하수도

특장점: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J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